

# 지상신선실현 - 인간개조에 대한 이해

鄭大珍\*

## 目次

I. 머리말	III.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의 내용
II. 대순진리와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	1. 不老不死와 無病長壽
1. 天地公事와 지상신선실현	2. 지혜의 통달
2. 無自欺를 통한 지상신선실현	3. 任意用力의 발휘
3. 道通君子로서의 지상신선	IV. 맺음말

## I. 머리말

대순진리의 신앙대상이신 구천상제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32년전에 이 땅에 강세하시어 전무후무한 진리의 도(道)를 선포하셨다. 그것은 진멸(盡滅)의 지경에 처한 천하창생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영원한 낙원의 후천선경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상제께서 강세하시기 이전의 세계는 선천(先天)으로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진 비겁(否劫)의 시대였다. 이에 원시의 모든 신성·불·보살들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겁액을 구천(九天)에 하소연하였으므로 구천의 상제께서 천하를 대순하시고 마침내 신미년(1871)에 강세하시어 9년간의 대공사를 설정하셨던 것이다. 그 공사의 주된 방향은 해원(解冤)을 위주로 하고 보은(報恩)으로서 종결된다. 해원·보은 양대(兩大) 원리가 모두 상생(相生)을 바탕으로 하면서 더 없는 평화의 낙원을 이루게 될 때 비로소 천지공사

---

\* 대전대학교 대순사상학술원 고문

는 실현된다.

조정산 도주께서 확립한 대순진리는 위와 같은 구천상제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선포되었으며 그것은 종지(宗旨)와 신조(信條), 목적(目的)으로서 체계화된다. 종지는 대순의 사상으로서 총체적인 이념을 담고 있으며 신조는 그 실천방법론을 말하며 목적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하는 경지를 밝힌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종지와 신조 목적 가운데 특히 목적에 관한 이론이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선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다. 그 첫째 항목에 해당하는 무자기-정신개벽은 도통진경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경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의 본 바탕이 되는 것으로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세를 가리킨다. 지극한 도심(道心)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무자기-정신개벽은 무욕청정(無慾淸淨)의 수행과 정심수신(正心修身)의 자세 그리고 훈회와 수칙을 생활화하는데서 이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순진리의 수도인은 지성으로 주문을 봉축하고 일심으로 수도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다.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두 번째 항목은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이다. 이는 무자기-정신개벽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수 있는 인간의 궁극적 완성을 가리킨다. 세 번째 항목에서 제시된 지상천국건설-세계개벽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되는 이상적 사회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항목에 대한 것이며, 그 이론적인 배경과 실천방법 그리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Ⅱ. 대순진리와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

### 1. 천지공사(天地公事)와 지상신선실현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지상신선실현은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부터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구천상제께서는 본래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구천(九天)에 머물러 계셨으나 여러 신성·불·보살들이 회집(會集)하여 상제가 아니면 이 혼란한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삼계(三界)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大巡)한 결과 한국 땅을 택하여 신미

년(1871)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된 것이었다. 인간의 몸으로 화신(化身)한 상제께서는 그神通자재(神通自在)한 권능으로 대역사(大役事)를 집행하게 되는데, 신축년(1901)부터 기유년(1909)까지 이루어진 천지공사(天地公事)가 그것이다. 이는 상제 강세이전의 진멸지경에 빠진 인류와 천하창생을 구제하기 위한 작업이며, 도화낙원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삼계(三界)개벽(開闢)의 공사이기도 하다. 이 공사로 인해 인류는 새로운 우주환경을 맞이하고 나아가 그 세계를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니 지상신선실현이 곧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구천상제께서 행하신 천지공사는 과거에 어떤 세계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던가.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행하시기 이전은 흔히 선천(先天)이라는 말로 일컬어진다. 인류가 지상에 태어나 살아온 10만여년의 세월은 모두 선천(先天)이라고 하는 우주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진행과정을 지배했던 유일한 원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상극(相克)이었다. 상극이란 모든 만물이 서로의 성질을 달리할 때 그 관계를 아우르는 표현으로서 대립과 투쟁으로 이어지는 경쟁관계를 지칭한다. 적자생존(適者生存) 약육강식(弱肉強食)이 행해지는 시기도 이 때이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써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것도 이 때이다. 인류는 이러한 상극이 지배하는 세계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역사 또한 상극에 지배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상극에 지배된 인간 사물이 그나마 자기발전을 거듭하면서 문명을 개창해 나왔던 것이 근대사회에 이르러 발생한 문명의 폐단으로 인해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윤리부재의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곧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를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아가 삼계(三界)를 혼란하게 하여 도(道)의 근원을 끊어지게 하였으므로 신명계(神明界)내에서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조장하였다. 신성·불·보살은 그 신명계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인류와 신명계가 처한 이 겁액(劫厄)을 최고위(最高位)인 구천(九天)에 하소연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상제의 강림이 이루어진 것이다.

상제께서 진단한 과거의 세계는 일단 상극의 원리가 지배한 것이 원인이 되어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그 주체가 되었던 것이 다

름아닌 인간이었으며 그가 지닌 욕심은 상극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파멸의 지경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했다. 상극은 본래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으로서 우수한 인자(因子)를 가려 뽑기 위한 필요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겨난 패배자의 원한은 승자를 향한 끝없는 원망으로 치달아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살육을 자행하고 만다. 상제께서는 이 과정에서 생겨난 모든 부정적인 상태를 '원(冤)'이라 규정하였고 나아가 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것만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길임을 직시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전경」 구절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 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공사 1장 3절)

일단 상극에 지배되어 있으면 어떤 놀라운 성취도 그 이면에는 상대적 패배를 지닌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 성취의 결과는 언젠가 반대급부로서 도전받게 되어 급기야는 상대적 패배를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인간의 문명도 이와 마찬가지로 근대에 등장한 과학문명의 성과는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파괴와 함께 윤리도덕을 망각한 물신(物神)숭배의 풍조를 야기시켰다. 본래 천상(天上)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일컬어진 서양문명은 지나치게 물질에 치우친 나머지 동양의 정신적 가치를 부정하는데 이르고 나아가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렀던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상극의 관계로 맺어졌으므로 자연을 파괴한 인간이 그 반대급부로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자연도 인간에 대해 원한(怨恨)을 지니고 인간을 파멸로 이끌려고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만고(萬古)에 누적된 원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원한이 생길 수 없는 새로운 원리로써 문명을 개창하고자 하였

으니 ‘해원상생(解冤相生)’은 이를 이념적으로 잘 표현한 말이다.

상제께서는 그가 지닌 절대권능으로써 9년간의 대공사를 행하셨으니 여기에 공표된 기록들은 모두 우리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세계의 청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위의 전경구절에서 명시된 것처럼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하신 말씀은 상제의 천지공사가 선천의 파멸지경에 이른 인류를 건지는 구제의 역사(役事)이며 새로운 낙원의 세계로 인도하는 후천개벽(後天開闢)의 공사임을 나타낸 것이다. 이로써 인류는 더 없는 낙원의 세계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대순진리의 목적이란 그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고자 함을 명시한 것이라 하겠다.

상제께서 설정하신 후천은 어떤 세계인가.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다스리며,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地上仙境)이다.(예시 81절 참조) 이러한 세계에 사는 인간은 과거 선천의 인간 모습일수가 없고 새롭게 개조된 신인간이 된다. 달리 말하자면 천상(天上)의 존재로만 알고 있는 신선(神仙)이 지상(地上)에 내려와 살고 있는 모습, 즉 지상신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행록 5장 25절)고 하신 말씀처럼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신선화(神仙化)되어서 무한한 행복을 누리는 시대가 바로 후천이다.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는 이와 같은 상제의 천지공사가 지향하는 인간의 완성을 말하고 있으며, 후천을 이끌어 나가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 하겠다.

## 2. 무자기(無自欺)를 통한 지상신선실현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실현되는 후천선경은 우리 인류가 소망하는 지상천국이며,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는 새로운 세상이다. 이러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는 다름아닌 인간이다. 선천에서의 인간은 상극의 원한속에 투쟁을 일삼으며 생로병사의 고통에 시달렸으나, 후천에는 지극한 평화를 누리며 불로불사하는 지상신선으로 거듭난다. 인간의 이러한 위상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인존시대'라고 하며 과거 선천의 '천존시대'와 '지존시대'에 비해 인간이 가장 대접받는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인존'이라는 말의 의미에는 일정한 신격(神格)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천존(天尊)' '지존(地尊)'이라는 말의 의미에 일정한 신격을 담고 있는 것과 같다. 고대에 인간이 신(神)을 숭배할 때 그 신은 하늘(天) 또는 땅(地)의 어느 곳에 머물러 있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그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神)이 인존시대에 이르러 바로 인간 자신에게 머무른다면 이는 인간이면서 신이고 신이면서 인간이 된다. 인간이 스스로 가장 귀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곧 인존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인존시대의 인간은 지상신선이며 선천의 인간이 개조된 상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지상신선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대순진리의 수도인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존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지상신선실현은 그 선행목적으로 제시된 무자기-정신개벽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된다.

무자기-정신개벽은 인존, 즉 지상신선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정신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인륜과 도덕에 어긋나지 않게끔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만이 지상신선이 되는 길이다. 예의를 모르고 사회도덕을 어기면서 그 목적달성을 부르짖는다면 나무위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현재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예의바르고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이미 지상신선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그 자신의 모습이 될 것이다. 구천상제께서 강조한 지상신선은 이와 같은 무자기의 수도로써 이룩해 내는 도덕적 인간에 다름아니며 그 인륜과 도덕으로써 정신이 개벽된 인간을 지칭한 것이라 하겠다.

현실의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그로부터 벗어난 피안의 세계에서 지상신선을 생각하거나 어떤 현실도피적인 의미에서 신비한 존재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순진리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 그 이유는 상제께서 천지공사를 하게 된 배경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된 선천의 상황에서 「...천지신명이 모여 상제가 아니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 하므로 괴롭기 한량없으나 어찌할 수 없이 맡게...(공사1장 9절)」 된 것이 천지공사였다. 그리하여 천지공사에서는 천도와 인사의 상도를 바로잡고 끊어진 도의 근원을 되살리는 것이 주된 이념이 되며 이로 인해 새로운 문명을 개창함으로써 삼계(三界)가 개혁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전해 나가는 과학문명은 인간의 정신 개혁에 비하면 주변적인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어떤 놀라운 환경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다. (「천지 무일월 공각(天地無日月空殼) 일월 무지인 허영(日月無知人虛影)」 - 예시21절 참조) 그만큼 인간의 존재가 세계변화에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하고 이에 따라 인간 자신의 개조를 위한 수도가 필수불가결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신 원일이 개혁공사를 빨리 행하시기를 상제께 간청하니라. 상제께서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쓰면 그것은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 어찌 차마 행할 바 이냐」 고 말씀하셨으되 원일이 「방금 천하가 무도하여 선악을 분별하기 어려우니 속히 이를 잔멸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주시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고 말하면서 간청하니 상제께서 심히 괴로와 하셨도다. (공사2장 24절)

윗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구천상제께서 행하시는 개혁공사는 기회와 천시에 입각하여 진행되는 공평무사(公平無私)한 역사이다. 한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에 구애되어 행해지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없다.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이어야 한다. 또한 후천의 문명을 여는 개혁공사에는 반드시 여기에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천지(天地)가 사람을 쓰는 때에 참여치 않는다면 이를 어찌 사

람이라 하겠는가”(…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 3장47절 참조)라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후천문명에 동참할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 이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후천문명에 적합하게 자신의 정신을 개혁하여야 하며 그렇게 정신개혁이 된 자가 지상에 가득찼을 때만이 진정한 삼계개혁이 실현됨을 뜻하고 있다. 상제의 참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개인의 욕심으로 개혁을 재촉하게 되면 천하에 재화를 끼치게 될 뿐이며 억조의 생명을 억지로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무엇보다도 수도의 공부가 절실한 것이지 개혁이 급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무자기로써 수도하여 자신의 정신을 개혁하면 지상신선실현의 내적인 단계를 완성하는 것이다. 인간의 심성이 먼저 거울과 같이 닦여져 있어야 모든 행실이 올바르게 우러나올 수 있다. 이로써 주어진 환경을 잘 다스려 나갈 수도 있다.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요하고 좋은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인간의 심성이 사악하게 남아 있다면 끝없이 살육이 자행되고 혼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상제께서 ‘해원(解冤)’을 위한 공사를 행하셨건만 다시 ‘결원(結怨)’ ‘적원(積怨)’의 과정을 밟는다면 강세(降世)하신 의의가 있을 수가 없다. 물론 천지공사의 내용에는 물리적 환경의 놀라운 변화도 예비하고 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자격요건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환경적인 변화는 상제의 권능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인간 자신의 정신개혁은 자발적인 수도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제께서는 개혁이전에 모든 인류를 향해 일심(一心)으로 수도(修道)할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고, 여기에 목적으로 제시된 무자기-정신개혁이 새롭게 부각된다 하겠다. 따라서 무자기는 지상신선실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목표로 보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 3. 도통군자(道通君子)로서의 지상신선

구천상제께서 이룩하시는 후천선경은 모든 사람이 인존(人尊)이 되어 살아가는 지상낙원이다. 인존의 내용이 곧 지상신선임을 말하였거니와 대순진리내에서 일컬어지는 고유한 표현은 도통군자(道通君子)이다. 도통군자는 대순진리의 종지에서 밝힌 바 있는 도통진경의 경지를 획득한 사람을 말하며

수도인이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 나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공사1장 2절)」 고 공표하고 지상낙원의 이정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낙원의 환경을 누리는 가장 귀한 존재는 다름 아닌 인간이며, 이 때의 인간은 인존이면서 도통의 경지를 지닌 인간이다. 그렇다면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지상신선은 도통의 경지를 지닌 인간을 일컫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것이다.

도통에 대해서는 상제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 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 교운1장41절)

라고 하여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닦은 바란,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 샘이라.」 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봉을 응기하여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上有道昌中有泰仁下有大覺)」 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절)

라고 하여 상·중·하의 구분을 지닌다. 그러나 그 모두가 도통군자로서의 자격을 지닌다는 데는 구분이 없으며 자신의 기국에 맞는 신(神)이 응기하여 제각기 신선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이 지상신선은 현세의 인간이 수도를 통해서 도달하는 도통군자로서의 인간상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를 통해서 도통의 경지에 이르는 것은 매우 힘든 시련을 요구한다. 수많은 유혹에도 이끌리지 않아야 하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오로지 남을 잘되게 하는 것으로 일관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지니고 타인으로 인해 그 속을 썩히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함으로써 마음을 단련해 나가야 한다. 수심연성(修心鍊性)과 세기연질(洗氣煉質)은 그러한 수도의 과정에서 요구되는 심성과 기질의 단련을 강조한 말이다. 수도의 방법은 앞에서 다룬바 있는 무자기로써 실천해 나가야 한다. 무자기가 곧 정신개벽이다. 목표는 언제나 정신개벽이지만 그 구체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무자기를 떠올려야 하며, 그래도 알지 못하면 성·경·신을 실천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도 특히 성(誠)은 언제나 일심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행하여 변함이 없는 것을 가리킨다. 그 도통의 경지가 설혹 남이 보기에 허황된 것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신념이 들어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남이 하지 않는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오직 일심으로 전념한다면 그 성취의 길은 이미 눈앞에 놓여져 있다.

「나의 일은 여 동빈(呂洞賓)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 장생술을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 머리가 검어지고 굽은 허리가 곧아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 값은 천냥이로다 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예시 61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듯이 아무리 허황된 경지라 하더라도 진실로 그 뜻을 지닌 자가 있음으로 해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다. 길이 있는 곳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다. 상제께서는 그러한 뜻 즉 일심을 지닌 자로 하여금 도통의 경지를 획득할 수 있게끔 천지공사를 보신 것이다. 그 결과 도통의 경지를 획득함으로써 더없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상제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욕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홑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함이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데가 없으리라.」(예시 82절)고 하시면서 수도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난을 전제하고 그것을 잘 이겨낼 것을 강조하신다. 고난 후에 주어지는 도통의 영화(榮華)는 이 세상 어느 명예와도 비교가 되지 않는 값진 것이다. 그것을 성취하는 길이 무자기이며 상제께서는 천지

공사를 통해 그 길을 예비하여 놓으셨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지상신선실현은 수도를 통해 도달하는 도통군자를 향한 목적이며, 그 실현의 과정에 모든 인류의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 Ⅲ.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의 내용

#### 1. 불로불사(不老不死)와 무병장수(無病長壽)

대순진리의 목적으로서 지상신선실현이 달성되었을 때에 인간은 선천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안되는 모습을 지니게 될 것이다.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다'고 한 것은 '신선'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동경하는 이상적 인간상임을 나타낸 것이며 또한 그것을 지켜볼 만큼 불로장수를 한 사람이 없었음을 말한다. 인간의 '불로불사'를 향한 꿈은 그렇게도 지속적이고 요원한 것이었으나 이제 구천상제께서 이룩한 천지공사로 인해 그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상제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권지 1장 11절)

라고 하여 후천의 인류가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선경(仙境)의 낙을 누리게 된다고 공표하신다. 여기에 지상신선실현은 인류가 상제의 천지공사로 인해 얻게되는 그 대조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표현이라 하겠다.

선천에서의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으로 하여금 한없는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인생을 암울하게 만드는 주요한 고통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죽음은 인간이 유한자(有限者)로서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실로 그에 대한 두려

움을 없애기 위해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종교에서 제시하는 내세관(來世觀)은 죽음 이후의 영혼이 머무는 세계를 묘사한 것으로 현세에서의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가르침이라 하겠다. 하지만 어떤 가르침도 인간이 죽음에 이른다는 현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단지 심리적인 안정을 통해 현실을 견뎌하게 수용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비록 동양의 특정 종교에서는 양생술과 같은 비방을 통해 생명을 연장시키고 장수를 도모하기도 하였지만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의 연장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불로불사는 역사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 불로 불사의 실현을 위한 실로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시도들이 인간 역사를 통해 존재해 왔으나 그 중 어느 하나도 현실적인 성공을 거둔 적이 없었다. 그만큼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근원적인 고통이면서도 극복될 수 없었던 과제이다. 하지만 그 꿈이 환상이 아닌 현실로써 실현가능하게 되었음은 대순진리의 목적에서 제시된 '지상신선실현'의 의미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지상신선실현을 통해 불로불사가 가능하게 된다 함은 후천에서의 생명이 선천에서의 생명과 그 차원을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천에서 수명이 길다고 하는 것은 그 육체적인 생명력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말하며, 이는 타고난 체질이나 건강관리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다. 주로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수명이 좌우되는데 그 물리적인 환경은 선천에서는 유한(有限)한 것이어서 인간의 수명 또한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가치는 긴 수명이 아니라 얼마나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느냐에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근심 걱정으로 수명만 길다면 차라리 일찍 죽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후천에서 생명연장의 단위는 어떤 물리적인 척도보다는 가치척도가 포함된 복록(福祿)이라는 단위가 보다 유효하게 적용된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복록의 정도가 얼마만큼이냐에 따라 자기 수명이 결정되는 것으로 그 복록을 쌓아나감에 의해 자기 수명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다.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 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교법1장 16절)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여기는 후천에서 불로불사한다 함은 끝없는 복록이 후천세계에 펼쳐져 있음을 암시한다. 「선천에는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또 너희가 아무리 죽고자 하여도 죽지 못할 것이요. 내가 놓아 주어야 죽느니라.(교법 3장 35절)는 말씀처럼 상제께서 이룩하시는 천지공사에 누구나 동참하기만 하면 그 맡은 일이 곧 복록이 되고 그 일을 하는 한에는 불로불사가 되는 것이다.

불로불사에는 또한 무병장수(無病長壽)를 포함한다. 상제께서 천명(闡明)하신 구제창생(救濟蒼生)에는 병고(病苦)에 시달리는 인류를 건지고자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인간은 결국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것이므로 불로불사를 위해서는 인간의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된다. 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만국의원(萬國醫院)을 설치하고 죽은 자를 재생케 하며 눈먼자를 보게 하고 앓은뱅이도 걷게 하며 그밖에 모든 질병을 다 낫게 하리라고”(공사 3장 35절)하여 질병이 없는 세계를 전제하였다. 이로써 후천은 불로불사와 무병장수으로써 지상신선실현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2. 지혜의 완성

지상신선을 실현함에 따라 얻게 되는 인간의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그 지적(知的)인 측면에서의 통달과 완성이라고 할 것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 유한(有限)함을 느끼는가 하면 그 지적(知的)인 면에서 완전하지 못할 때 또한 한계를 느낀다. 예를 들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한치 앞의 미래를 알지 못한다든가, 지구 밖의 우주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든가, 이 세상의 유용한 모든 정보를 다 알지 못한다든가, 시간·공간을 넘어선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등이다. 그만큼 인간은 자신의 지식에 항상 목마름을 느끼고 끊임없이 외부세계를 탐구해 왔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된 현재에 이르러서도 인간은 지적인 탐

구를 멈추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의 지식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구천상제께서는 천지공사를 통해 현재의 인간을 개조하여 지상신선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변화된 지상신선은 그 지적(知的)인 면에 있어서도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천에는…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예시81)라는 말씀처럼 지상신선이 지니는 지혜의 정도가 선천의 인간과 다름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제께서 말씀하신 통달한 지혜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다음의 전경구절을 참고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지혜란 천지와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을 지닌다. 매사에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일컬어 지혜용력이라 한다. 큰 지혜란 천지와 같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운을 지니고 그 다음은 일월과 같아서 기운과 차는 이치가 있으며, 그 다음은 귀신과 같아서 길흉화복의 도를 지닌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 (제생 43절)

즉 춘하추동의 변화 이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매사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일월의 변화에 대해서 통달하며, 귀신의 길흉화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지적(知的)능력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계산적 지식이나 단순한 사실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기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천지 변화를 꿰뚫어 관찰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내다볼 수 있는 통찰적인 지식을 일컫는다. 역대의 성인(聖人)들은 모두 이와 같은 지식을 소유하여 미래를 말하였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화난(禍難)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으로 계도(啓導)하였다. 그 사상들이 압축되어 오늘날의 고전(古典)으로 전해오는 것이다. 상제께서는 수도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일깨워주기 위하여 고전(古典)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서전(書傳) 서문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 상장(大學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교법 2장 26절)는 말씀은 고전에 담긴 지식이야말로 참된 큰 지혜임을 나타낸 것이다.

참된 지혜에 통달하기 위해서 상제께서는 무엇보다도 공부가 중요함을 강조하신다. 지상신선이 실현되었을 때 주어지는 통달된 지혜도 그 이전의 공

부과정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정 북창(鄭北窓) 같은 재주로도 입산 삼일 후에야 천하사를 알았다 하느니라」(교운 1장 35절)와 같이 지상신선실현에도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천지변화에 통달할 수 있는 큰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신적인 수련과정도 포함되고 고전을 읽는 지식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는 수도하는 과정 자체가 다 공부에 해당될 수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지방신(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 아니라. 이런 일을 불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 하셨도다. (교운 1장 63절)

윗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공부를 하는 수도인에게는 그 사람을 호위하는 신명이 있어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다. 대순진리에서 지상신선을 말할 때에는 신이면서도 인간이고 인간이면서도 신인, 신인합일(神人合一)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그 실현을 위해 공부를 한다고 할 때에는 신과 인간이 같이 공부하는 것이 된다. 신이 인간을 떠나지 않고 인간이 또한 신을 떠나서 공부할 수 없다. 그 성취의 순간에는 신인이 합일되어 신인(神人)불상리(不相離)의 경지에서 궁극적인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신선실현의 내용에는 인간이 도달하는 지혜의 완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천지변화와 길흉화복에 통달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임의용력(任意用力)의 발휘

대순진리의 목적에 부합된 지상신선은 그 지혜의 완성과 함께 또한 행위적인 면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인간이 지닌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뜻한 바의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가히 상상치 못할 부분이지만 원래의 인간이 소망해왔다면 천지공사를 통해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다.

인간은 원래 이성적으로는 다른 동물에 비해 훨씬 뛰어난 능력을 지녔지만 그 육체적인 조건은 오히려 동물보다 열등한 것이 사실이다. 치타만큼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코끼리만큼 힘이 세지도 못하고, 솔개처럼 자유로이 하늘을 날 수 없으며, 물개처럼 빠르게 헤엄칠 수도 없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인간은 스스로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그 자신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다른 동물을 지배할 수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지닌 육체적 조건만큼은 달리 변화시키지 못하고 도구가 없이는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지상신선실현은 그 육체적 조건마저도 변화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성취하게끔 하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게 된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교운 1장 34절)

윗 글에 나타난 상재 상등의 도통군자는 진정한 의미의 지상신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만사를 임의로 행하면서 용사(用事)에 제한이 없는 경지야말로 지상신선을 실현한 상태라 할 것이다. 여기서 표현한 임의용사(任意用事)에는 물리적인 힘을 무한대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의 조화를 부리고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오르내리며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를 수 있는 경지라 하겠다.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예시80절)」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예시81절)」 「…운거(雲車)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만리 길을 경각에 왕래하리라(예시 75절)」 등의 말씀은 이러한 지상신선으로서의 능력이 발휘된 세계를 예시하고 있다.

한편 지상신선이 발휘하는 능력이 무한하다고 할 때 그 능력의 원천은 무엇보다도 마음에 있다. 육체적 단련을 거듭하면 단지 물리적인 힘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하다. 하지만 마음의 수련을 쌓아서 지상

신선이 되면 그 결과로서 만사를 임의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된다. 왜냐하면 지상신선의 목적 달성에는 천지공사의 이념에 입각한 수도를 필요로 하므로 마음의 수련이 모든 수도의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제께서는 「너희들이 항상 도술을 배우기를 원하니 지금 가르쳐 주어도 그것은 바위에 물주기와 같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니라. 필요할 때가 되면 열어주리니 마음을 부지런히 하여 힘쓸지니라」(교법2장 12절)고 하여 마음의 수도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마음의 수련을 쌓아서 도달하는 경지는 실로 신비한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의 구절에서 보면,

이 때에 오랫동안 가물었도다. 상제께서 갑철에게 청수 한 동이를 길어 오게 하신 후 일러 말씀하시기를 「아래와 옷을 벗고 물동이 앞에 합장하고 서 있어라 서양으로부터 우사를 불러와서 만인의 갈망을 풀어주리라.」 갑철이 말씀대로 옷을 벗고 동이 앞에 합장하여 서니 문득 검은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큰 비가 내리니라. 이때 상제께서 갑철에게 「청수를 쏟고 옷을 입으라」 하시고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들도 지성을 다하여 수련을 쌓으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류 찬명이 「이런 일은 세상 사람이 다 모르니 원컨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널리 깨닫게 하여 주소서」 하고 아뢰었도다.(권지 2장 35절)

라고 하여 상제께서 자연의 조화를 부리는 것이 묘사되어 있다. 평범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경지이지만 지성을 다해 수련을 쌓으면 누구나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수련이란 물리적인 기술과 같은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닦아서 도달하는 도통의 경지를 얻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대순진리의 지상신선이 된다는 것은 어떤 도술(道術)을 배우는 것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제의 천지공사를 향한 도심(道心)을 지녀서 그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열리는 무위이화(無爲而化)의 경지라 할 것이다. 그로써 얻게 되는 실질적인 결과를 임의용력(任意用力)이라 하며, 이는 거울같은 마음을 근거로 하여 모든 일상생활에서 발휘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경지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대순진리의 목적인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목적에 관한 내용은 앞의 논문에서 다루었던 무자기-정신개벽과 무관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무자기-정신개벽이 주로 인간의 마음 또는 정신을 주제로 하여 다룬 것이라면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는 그 마음을 지닌 인간 자체의 개조된 모습을 담고 있다. 즉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새롭게 개조된 모습으로 우주변화의 주체로 드러나는 것이다. 구천상제의 천지공사에서는 이러한 인간 개조의 모습을 예비하였으며 지상신선은 그렇게 변화된 인간의 이상적 모습을 일컫는 말이다.

지상신선이 실현된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본문에서는 불로불사와 무병장수·지혜의 완성·임의용력의 발휘등으로 묘사하였는데, 현실에서 상상하기 힘든 미래의 일을 짧은 언설(言說)로서 다 표현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모든 꿈같은 성취도 분명한 근거가 있고 신념이 있다면 결코 공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대순진리의 목적으로 제시된 지상신선실현-인간개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천지공사’라고 하는 분명한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유지(遺志)를 숭신(崇信)하는 수도인의 실천수도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 그 성취의 순간이 그리 멀리 있지는 않다 하겠다.